

개의 질병에 사용된 동아시아 전통의학 처방 연구

박상영¹ · 오준호^{1*}

Orthodox Oriental Medicine in East Asia used for Canine Diseases

Park Sang-young¹ · Oh Jun-ho^{1*}

¹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Objective: Today, the public concern for "Companion Animal" as a family member is ever increasing. Accordingly, the cases of traditional veterinary medicine treatment targeting a companion animal has been increasing, but the traditional records in literature about this have hardly ever been introduced to academic circles. Hereupon, this writing is intending to collect the prescriptions, which were once used for treating canine diseases, in order to report them to academic circles first.

Method: This writing recorded the information about canine diseases and their treatment from the books related to the orthodox oriental medicine in East Asia, and analyzed their meanings.

Result: Initial records about canine diseases are found in East Asian traditional medicine books including 『Bonchoseubyu』(741), 『Ilwhajajegaboncho』(unidentifiable period), 『Jeungryuboncho』(1082), etc. The disease perceived by humans at that time was "gwa"(a boil) which is a kind of skin ailments. In addition, these medicine books show that people at that time concentrated on the value of use of a dog as meat rather than a pain of a dog's diseases. 『Hwalsujaju』(1873) which was established during the Qing Dynasty leaves the most abundant data on canine diseases. This book perceived a dog as a precious existence watching over human housing and property, according to which, canine diseases and treatment methods are subdivided. The prescriptions for a dog's disease in our country are identifiable only in 『Jeungbodanbangshinpyeon』(1913)과 『Bijeongmanbyeongtongchibeop』(1933). These books include the prescriptions not only for a dog's disease but also for a disease of a cow, horse, sheep, chicken, and pig, etc. which are familiar to us.

Conclusion: The prescriptions used for a dog in East Asia were different from those for people. It was found that they used a medicine noticeably for external application for easy treatment, and in case of the use of an internal medicine, they adopted a method of getting dogs to take a medicine mixed with rice or porridge for dogs. Such a clue will be applied to the traditional-medicine-based treatment of a companion animal for the time to come.

Key Words : Dog, Canine Disease, veterinary medicine, Traditional medicine, Korean Medicine.

I. 서론

* 교신저자 : 오준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483 한
국한의학연구원
E-mail : junho@kiom.re.kr
투고일 : 2013년 7월 2일 수정일 : 2013년 8월 1일
게재일 : 2013년 8월 1일

오늘날 가족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가족들 사이
의 갈등의 문제는 줄어든 반면 인간적 소외감과

정서적 결핍으로 인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의 일원으로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¹⁾ 가정에서 애완견을 기르면 가족 간의 애정이 깊어지고 자녀들의 인성교육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으며 정신적 육체적 장애 치료의 보조 수단으로서도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²⁾

이에 따라 집에서 기를 수 있는 반려동물, 특히 개와 고양이의 질병에 대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정확한 국내 통계는 없지만, 미국의 경우 수의사들의 진료수가의 55%가 개의 진료에서 발생하며, 20.7%는 고양에서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수의학 전체 경제 규모의 3/4에 해당하는 75.5%가 개와 고양이에 집중되어 있는 셈이다.³⁾ 국내에 경우에도 도시에 위치한 동물병원의 경우 주 진료 대상은 개 혹은 고양이로 집중되어 있다.

최근 일부 수의사들을 중심으로 수의학과 한의학의 접목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개의 질환에 있어서도 침과 한약으로 질병을 치료하여 좋은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⁴⁻⁸⁾ 이들 임상 연구에 사용된 침과 한약은 인간을 대상으로 형성된 전통의학지식을 차용한 것으로 인간의 생리병리기전과 동물의 생리병리기전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비교적 정보가 많은 말이나 소에 대한 전통수의학지식을 살펴보면 질병과 치료에 대한 접근 방법이 인간과는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전통수의학 치료에 앞서 이들을 대상으로 축적된 전통지식을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반려동물’로까지 일컬어지는 개나 고양이에 대한 전통수의학 처방들은 학계에 소개된 바가 거의 없다. 말이나 소가 근대 이전에 국가에서 관리해야 할 정도로 재산상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던 것에 비해, 오늘날 애완동물로 여겨지는 동물들은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그보다는 훨씬 덜했기 때문에 이들 동물에 대한 전통의학 기록은 매우 희귀한 편이기 때문이다.²⁾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에 남아 있는, 오늘날 기준으로서의 ‘반려동물’에 대한 약물처방을 수집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그 첫 번째 작업으로 개의 질병을 치료했던 처방들을 수집하여 학계에 보고하고자 한다. 관련 자료가 드문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개의 질병과 관련된 치료법들을 추적하여 소개하는 작업만으로도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진은 역대 주요 본초서 및 대형 방서들을 우선 검색하였고, 수의학과 관련된 전통의서들을 추가로 점검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반려동물’ 처방에 대한 전통의학 문헌으로서의 접근은, 오늘날 큰 시장을 이루고 있는 애완견 사료시장에서의 새로운 아이템 확보, 수의학의 영역 확장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며, 특히 한의학의 문헌 및 실험 연구의 저변확보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라 사료된다.

II. 본 론

1. 전통사회에서 개의 사육

오늘날 인간과 개의 긴밀한 유대관계는 인류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변화이다. 개는 아주 오랜 기간 인간에게 사냥을 돕고, 식육을 주는 존재였다. 흔히 부정적인 의미로 토끼사냥이 끝나면 사냥에 사용된 개를 삶아 먹는다는 “兎死狗烹”이라는 고사가 사용되곤 하는데, 인간적인 감정을 배제한다면 개와 인간의 관계를 가장 적절히 축약한 문장일 것이다.

개는 인간이 가축으로 기른 가장 오래된 짐승에 해당한다. 약 3만 년 전부터 인류는 개를 가축으로 기르기 시작했으며, 유라시아 대륙 각지에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가구는 전체 17.4%에 달한다. 특히 개의 경우 도시에서 기르는 애완견은 250만 마리, 시골에서 사육되는 개는 650만 마리에 달하며, 식용으로 길러지는 수는 집계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반려동물을 위해 사용되는 월평균 사육비용은 개의 경우 6만 천원, 고양이의 경우 4만 4천원으로 나타났다.¹⁾

2) 개와 고양이에 대한 한의학 치료를 설명한 서적들이 있으나, 대부분 인간을 대상으로 한 한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날 새로이 고안된 것들이다.⁹⁻¹¹⁾

서 2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개의 뼈가 발견되었다. 한반도의 개 사육은 신석기시대부터 확인되며, 출토된 유적을 보면 초기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길러졌으며 드물게는 순장을 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¹²⁾ 순장을 하였다 것은 인간과 개 사이에 정서적 유대관계를 암시하는 대목이나 이런 유적은 드물며, 대부분은 매장된 뼈가 산재해 있어 식육을 얻기 위한 목적이 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식육을 위한 개 사육은 인류의 보편적인 행위로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고대 로마, 고대 인디아, 북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 전 대륙에서 그 기록이 남아 있다.¹³⁾

조선시대에 개고기 섭취는 조리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일이었다. 『음식디미방』(1670), 『경도잡지』(1700년대 말), 『중보산림경제』(1715), 『규합총서』(1815), 『동국세시기』(1849), 『오주연문장전산고』(1850), 『부인필지』(1915),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1943) 등에는 개고기를 이용한 장국·찜·느르미·순대·술·당과 등 다양한 조리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¹⁴⁾ 개가 동물성 약제의 하나로 인식되었다는 점도 개의 식육과 연관 깊다. 『東醫寶鑑』(1613)에는 개를 약제의 하나로 다루고 있는데, 개의 음경[牡狗陰莖]·고기[肉]·피[血]·머리뼈[頭骨]·뇌[腦]·젖[乳汁]·이빨[齒]·내장[心·腎·肝·膽]·발굽[四脚蹄]·똥[白狗屎]·담결석[狗寶] 등으로 나누어 약효가 설명되어 있다.¹⁵⁾ 다른 동물성 약제에 비해 약으로 사용되는 부위가 다양한 것은 그만큼 많은 의학 경험이 축적되었음을 시사하며, 전통 사회에서 식용을 위해 개가 사육되었다는 사실과도 맥이 닿는다.

오늘날 개와 인간이 나누는 깊은 유대는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등장한 변화이다. 뒤에 살펴볼 것지만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개의 질병과 치료를 본격적으로 기록한 『活獸慈舟』(1873)를 보면, 개의 가장 큰 효용을 집과 재물을 지키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낫선 사람의 접근을 막거나 알리는 것이 당시 개에게 요구되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개에게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적다. 오히려

마치 가족이나 친구처럼 감정을 나누는 존재로 인식하곤 한다. 개의 질병과 치료 방법이 처음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기술되다가 점차 개를 중심으로 기술되는 것은 이렇게 인간과 개의 관계가 점차 변하여 왔기 때문이다.

2. 청대 이전 동아시아 전통의학 소재 개의 질병에 대한 처방들

동물과 관련된 전통의학지식은 몇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동물 자체를 약재로 사용한 경우로, 녹용과 같이 동물의 일부 부위를 가공하여 약재로 활용하는 지식이다. 둘째는 동물로 인해 생긴 질병을 다룬 경우로, 미친개에게 물렸거나 병으로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고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다. 세 번째가 동물의 질병에 대한 것으로, 동물이 병을 앓았을 때 사람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 방법에 관한 지식이다.

개와 관련된 지식으로 개 자체를 동물성 약재로 다룬 지식이 가장 많은 편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개로 인해 야기된 인간의 질병 치료에 대한 지식이다. 가장 드문 것이 바로 개의 질병 자체에 대한 지식이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세 번째에 해당하며, 청대 이전 의학문헌에서는 본초서적에서 몇 가지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1) 『本草拾遺』(741)

『本草拾遺』(741)는 唐代 陳藏器(약768-757)가 저술한 본초서로 모두 10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新修本草』에 수록되지 않았던 692종의 약재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현존하는 판본은 없으며 『證類本草』에 447종의 본초에 그 유문이 남아 있다.³⁾ 이 『本草拾遺』의 유문 가운데 개의 질병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⁶⁾

- ▶ (胡頹子) 諸果莖及葉, 煮汁飼狗主癩.⁴⁾

3) 아래 인용문의 출전 역시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를 따른다.

4)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第十三卷, 木部中品總九

호퇴자의 과실과 줄기와 잎 끓인 물을 개에게 먹이면 과창(癩瘡)을 치료한다.

▶ (省藤) 又取和米煮粥飼狗, 去癩.⁵⁾

성등을 채취하여 쌀과 함께 끓여 죽으로 만들어 개에게 주면 과창(癩瘡)을 제거한다.

▶ (鱈魚) 主狗及牛瘦, 取一二枚, 以箆從口及鼻生灌之, 立肥也.⁶⁾

추어⁷⁾는 개와 소가 수척한 것을 치료하는데, 1-2마리를 대롱이로 입과 코에 산채로 넣어주면 곧 살이 쪼다.

2) 『日華子諸家本草』(미상)

『日華子諸家本草』는 宋 초기 開寶年間(968-975)에 저술된 본초서적으로 작자와 연대는 분명하지 않다. 20권 규모의 방대한 저작이었으나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證類本草』에 600여종의 본초에 대한 유문을 통해 그 내용을 짐작할 뿐이다. 『日華子諸家本草』의 유문 가운데 개의 질병과 관련된 본초로는 烏藥이 보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烏藥) 猫犬百病, 並可摩服⁸⁾

오약은 고양이와 개의 모든 질병에 갈아 복용

十二種, 山茱萸[胡蘘子續注]: “【陳藏器】云胡蘘子, 熟赤酢澁, 小兒食之當果子止水痢, 生平林間, 樹高丈餘, 葉陰白, 冬不凋, 冬花春熟最早, 諸果莖及葉, 煮汁飼狗主癩. 又有一種, 大相似, 冬凋春實夏熟, 人呼爲木半夏, 無別功, 根平無毒. 根皮煎湯, 洗惡瘡疥并犬馬癩瘡.”

5)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第十三卷, 木部中品總九十二種, (陳藏器餘)省藤: “味苦, 平, 無毒. 主蛔虫, 煮汁服之. 又主齒痛, 打碎口中含之. 又取和米煮粥飼狗, 去癩. 生南地深山. 皮赤如指, 堪縛物, 片片自解也.”

6)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第二十一卷, 蟲魚中品總五十六種, 鰻[音謨]鰻[音黎]魚[鱈魚海鰻續注]: “【陳藏器】云鱈魚, 短小, 常在泥中. 主狗及牛瘦, 取一二枚, 以箆從口及鼻生灌之, 立肥也.”

7) 추어: 『東醫寶鑑』「湯液」에는 “鰻魚”로 표제되어 있으며, “미꾸리”로 언해되어 있다. ‘미꾸라지’를 의미한다.

8)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第十三卷, 木部中品總九十二種, 烏藥: “【臣禹錫等謹按日華子】云, 治一切氣, 除一切冷, 霍亂及反胃吐食, 瀉痢·癰癩·疥癩, 并解冷熱, 其功不可悉載. 猫犬百病, 並可摩服.”

시킬 수 있다.



<그림 1> 『證類本草』의 烏藥 모습

3) 『證類本草』(1082)

『證類本草』(1082)는 宋代 唐慎微(11C)의 저술로, 모두 1558종의 약재를 기재하고 있다. 당신미는 『嘉祐本草』와 『圖經本草』를 수합하고 당시 존재하던 본초 지식들을 결합하여 『經史證類備用本草』를 만들었다. 개인저작으로는 드물게 이후 국가 주도로 재간행 되었는데, 大觀3年(1108)의 『經史證類大觀本草』, 政和 6年(1116)의 『政和新修證類備用本草』, 紹興29年(1159)의 『紹興校定經史證類備急本草』 등이 그것이다. 이후 1249년 張存惠가 寇宗奭의 『本草衍義』(1116)의 내용을 추가하여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를 간행하였다. 『證類本草』에 실려 있는 개의 질환과 관련된 본초는 다음과 같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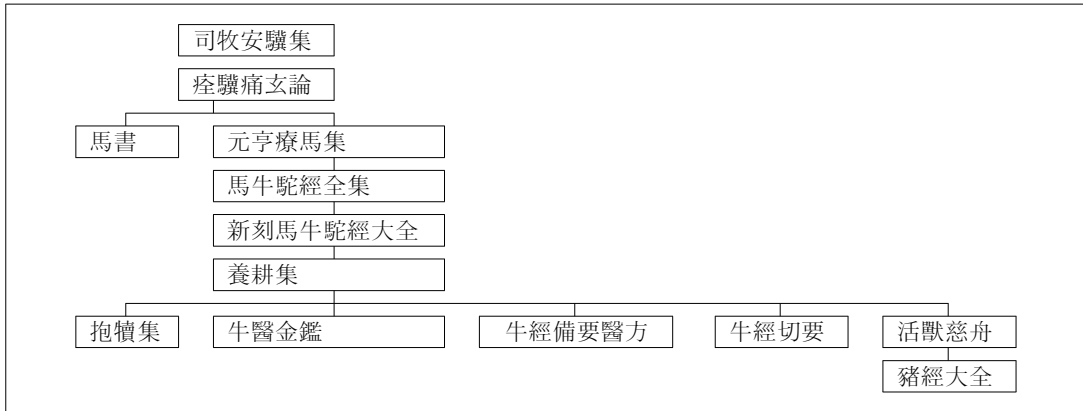
▶ (獼猴桃) 枝葉, 殺蟲, 煮汁飼狗療癩也.⁹⁾

미후도¹⁰⁾의 가지와 잎은 벌레를 죽이며, 끓여 즈

9)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第二十三卷, 果部三品總五十三種, 獼猴桃[今附]: “枝葉, 殺蟲, 煮汁飼狗療癩也.” 唐慎微(張存惠 重刊),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影印本), 南天書局有限公司, 臺北, 1976. 唐慎微(張存惠 重刊),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影印本), 臺北, 南天書局有限公司, 478, 1976.

10) 미후도: 『東醫寶鑑』「湯液」에는 “다래”로 언해되어 있다. ‘다래’를 의미한다.

<표 1> 주요 수의학 고의서 계통도



을 내어 개에게 먹이면 과창(癩瘡)을 치료한다.

▶ (海狔魚) 皮中肪, 摩惡瘡·疥·癬·痔瘻·犬馬癩疥, 殺蟲.¹¹⁾

해돈어¹²⁾의 피부에 있는 기름은 악창·옴(疥)·선(癬)·치루(痔瘻) 및 개와 말의 과창(癩瘡)과 옴(疥)을 치료하며 벌레를 죽인다.

▶ (魚脂) 主牛疥狗癩瘡, 塗之立愈.¹³⁾

물고기 기름은 소의 옴(疥)과 개의 과창(癩瘡)을 치료하는데, 환부에 발라주면 곧 낫는다.

3. 청대 이후 동아시아 전통의학 소재 개의 질병에 대한 처방들

1) 동아시아 전통의학 수의학과 『活獸慈舟』

동아시아 전통 수의학 역시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 다만 그 대상이 말, 낙타, 소 등 전쟁이나, 제사, 농사 등에서 큰 역할을 하는 동물에 국한되어 있었다시피 하여 개와 고양이 같은 동물들은 사

실상 배제되어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사회에서 개 역시 식육을 위해 사육되었지만, 그 이외의 효용은 크지 않았다. 말이나 소가 노동력을 제공하여 중요한 재산의 일부로 인식되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전통 수의학 서적에서 개와 고양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본초서 가운데 몇몇 기록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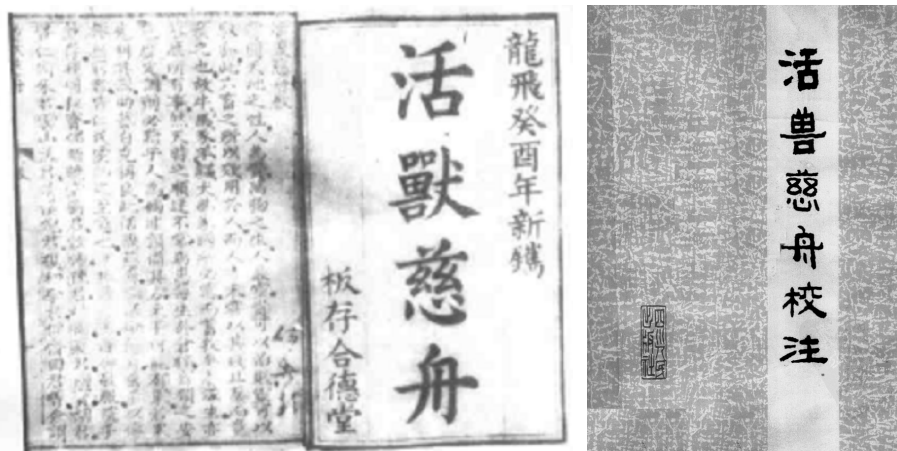
전통 수의학에서 다양한 동물들을 다루지 못한 것은 관심의 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건 때문이기도 하다. 전통사회에서 獸醫는 사회적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설령 치료의 방법이 있다고 해도 자유롭게 드러내기 어려웠다.¹⁷⁾

중국 수의학 주요서적의 계보를 제시해 보이면 <표1>과 같다.¹⁸⁾ 표에 보이는 『司牧安驥集』은 이미 唐 開成 연간에 편찬된 것으로, 조선전기 우리나라에 이미 소개되어 있으며, 馬醫 관련 서적들의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경우, 당나라 때 이미 수의학의 이론적 체계를 거의 다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新疆 지역에서는 소 관련 수의서가 나오게 된다. 宋元 시기에 수의원과 가축시체 해부검사 기구 및 수의약방이 설치되었고 수의학의 영역은 말과 소에서 낙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明代에는 수의학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 『元亨療馬集』이 나왔다. 清代에는 漢族의 저항을 막기 위해 개인적

11)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第二十卷, 蟲魚部上品總五十種, (陳藏器餘)海狔魚: “皮中肪, 摩惡瘡疥癬痔瘻·犬馬癩疥, 殺蟲.” 唐慎微(張存惠 重刊).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影印本). 臺北, 南天書局有限公司, 420, 1976.

12) 해돈어: 『東醫寶鑑』「湯液」에는 “물가치”라고 언해되어 있으며, 물고래의 일종이다.

13)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第二十卷, 蟲魚部上品總五十種, 魚脂: “主牛疥狗癩瘡, 塗之立愈.” 唐慎微(張存惠 重刊).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影印本). 臺北, 南天書局有限公司, 421, 1976.



<그림 2> 『活獸慈舟』(왼쪽: 四川省 발굴본, 오른쪽: 인민위생출판사 현대 활자본)

인 말 사육을 엄격히 금함으로써, 말에 관한 새로운 의학이 출현하지 못하였으나, 이 시기에 동아시아 전통 수의학은 그 범위가 소와 말 뿐만 아니라 돼지, 양 등 주요 가축, 그리고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에게까지 확대되게 된다. 이 분야의 대표적 서적으로는 四川 지방의 학자로 알려진 李南暉(號 靑峰)의 『活獸慈舟』(1877)를 들 수 있다.

2) 『活獸慈舟』(1873)

『活獸慈舟』는 1959년 中國 四川省에서 발견된 의서이다. 고증 결과 四川省 威遠縣 懸鈴 이었던 李南暉가 淸 同治 12년(1877)에 간행한 서적으로 밝혀졌다.¹⁹⁾ 이 책은 누린 소[黃牛], 물소[水牛], 말[馬], 돼지[豕], 양[羊], 개[犬], 고양이[貓] 등 동물의 종류에 따라 큰 목차를 나누고 있다. 소는 기존 수의학 서적에서 빈번히 다루어져 왔지만 돼지, 양, 개, 고양이에 대한 의학지식은 매우 희귀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活獸慈舟』 「犬」 부위의 내용을 전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²⁰⁾

① 總論

凡犬皆孕三月而產者, 多一歲兩孕. 產子少者爲吉, 產子多者則賤. 四足九竅具備, 靑黃黑白蒼黧悉全. 凡犬患癲狂瘋證者爲獠犬. 靑峰曰犬能守夜防閑. 犬爲防閑活鎖, 世間不可無也.

총론

무릇 개는 모두 3개월의 임신기간을 거쳐 출산하며 1년에 두 번 임신하는 경우가 많다. 새끼를 적게 낳는 것이 귀하고, 새끼를 많이 낳는 것은 천하다. 네 다리와 아홉 구멍을 갖추고 있으며, 털의 색깔은 청색, 황색, 검정색, 흰색, 회백색[蒼], 흑황색[黧] 등 별별 가지가 다 있다. 개 중에 광견병[癲狂瘋證]을 앓은 놈을 광견[獠犬]이라고 한다. 청봉(靑峰)이 말하였다. “개는 밤중에 경비를 설 줄 안다. 개는 살아있는 자물쇠이니,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동물이다.”

② 論相犬法

犬既有其形, 必有其象, 形象殊分, 毛色各異. 凡相犬先觀其頭, 頭宜平正方圓, 頂中起尖骨, 額有草綠者, 善守易獵, 眼目宜圓環露者, 能守夜善獵, 或入水捕獺, 山上捕麓, 能追山野禽獸等物, 凡喙短者, 多能善守看家, 口內俱生有橫紋, 總宜多紋者吉, 鼻宜少汗, 孔竅通深者, 行走如飛而不喘氣. 故獵者取之, 守家者亦宜之.

前胛處生開, 則善走善獵善守, 如前足生夾者, 行多遲慢, 捕獵棄之. 腰長宜高大, 腰短宜矮小. 總之, 無論高矮, 俱宜合體爲貴. 膀膊宜直, 尾帶務曲者, 守夜看家善通人意.

凡身生痣者性猛, 喙下有鬚者勇烈, 頭雄者性剛.

舌上有黑黧者, 避瘟免患獠而能善守. 起紅點

者, 避癘免癘善守.

犬脣切忌尖小, 主咬鷄. 脣黃脣黑者, 參之, 必善察人意而有眼力, 善能守夜.

總之, 認犬之法殊多, 俱當從此法觀察, 吾今聊表其真訣三三, 留于后世耳.

개의 생김새를 가지고 감별하는 법

개라는 것이 형(形)을 가진 이상, 반드시 상(象)이 있기 마련이며, 형과 상이 서로 다르고 털의 색깔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무릇 개를 육안으로 관별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그 두상을 살펴보는 법이니, 머리는 둥근 데는 둥글고 모난 데는 모나게 잘생긴 놈이 좋은데, 정수리에 첨골(尖骨)이 솟아 있으며, 이마에 초록빛이 도는 놈이 집도 잘 지키고 사냥도 수월케 한다. 눈은 둥글고 촉촉한 것이 좋은데, 밤에 집을 잘 지키고 사냥도 잘하며, 간혹 물에 들어가 수달을 잡아오기도 하고, 산에서는 사슴도 잡으며, 산과 들판의 새나 짐승 등을 추격할 수도 있다. 주둥이가 짧은 놈은 대개 집을 잘 지킨다. 입천장에 가로로 줄무늬가 파여 있는데, 대체적으로 줄무늬가 많은 놈이 좋다. 코는 맑이 적게 나는 놈이 좋은데, 콧구멍이 깊은 놈이 빠르게 잘 달리며 혈떡이지 않는다. 그 까닭에 사냥꾼들이 선호하며, 집 지키는 용도로도 마땅하다.

앞다리와 흉골 사이가 딱 벌어진 것이 잘 달리며 사냥도 잘하고 집도 잘 지킨다. 만약 앞다리와 흉골 사이가 좁으면 동작이 느려서 사냥 용도로는 적합지 않다. 허리가 긴 것은 키가 크고 덩치가 큰 것이 좋고, 허리가 짧은 것은 왜소한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덩치가 크던 작던 간에 몸의 생김새와 잘 맞는 놈이 귀하다 하겠다. 어깻죽지가 곧바르고 꼬리를 둥글게 마는 놈이 밤에 집을 잘 지키며 사람의 뜻을 잘 알아듣는다.

무릇 몸에 반점이 있는 놈은 성질이 사납고, 주둥이 아래에 수염이 있는 놈은 용감하며, 머리가 큰 놈은 성질이 강건하다.

햇바닥에 검은 반점이 있는 놈은 전염병에 강하고, 광견병이 걸리지 않으며 집도 잘 지킨다. 햇바닥에 붉은 점이 돌아난 놈도 전염병에 강하고, 광견병이 걸리지 않으며 집도 잘 지킨다.

개는 입술이 뽕죽하고 작은 놈은 절대로 피해

야 하는데, 주로 닭을 물어 해치기 때문이다. 입술이 노랗거나 입술이 검은 놈을 기르면, 분명 사람의 뜻을 잘 살피고 시력이 좋아서 밤에 집을 잘 지킬 것이다.

종합하자면, 개를 분별하는 방법은 많이 있겠지만,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관찰하는 것이니, 내 지금 두 세 가지 비결을 표출하여 후세에 전하는 바이다.

③ 論納犬法

犬能防閑守戶, 有益于人, 百步之外可聞其聲吠, 萬千之中能識其主人, 爲人間最貴之生籬, 作守戶防閑之活鎖, 故凡居家不可無之. 既知犬之貴重, 尤當曉其納法.

犬, 凡春產者多有病癘癲狂, 夏產者招陰而少耐熱, 秋產者具濁爲忌, 冬產者善守至貴.

凡犬入家, 先拌一碗, 用消食杆一个, 用飯搗上與食之畢, 以食復地, 然後入宅, 而不至逃走.

개를 집안에 들이는 방법

개는 경비를 서서 집을 지킬 수 있으므로, 사람에게 유익한 동물이다. 백 걸음 밖에서도 개의 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천 만 사람 가운데서도 그 주인을 식별해 내니, 인간에게 있어 가장 귀한 살아있는 울타리가 되며, 집을 지키고 도둑을 막는 살아있는 자물쇠라 하겠으니, 집안에 없어서는 안 될 동물이다. 개가 사람에게 귀중한 동물임을 알았다면, 마땅히 개를 집안에 들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겠다. 개는 봄에 태어난 놈은 광견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고, 여름에 태어난 것은 음성(陰性)의 병에 잘 걸리고 더위에 약하다. 가을에 태어난 놈은 더러워서 키우기를 꺼리며, 겨울에 태어난 것이 집을 잘 지키니 제일 귀하게 여긴다. 무릇 개를 집안에 들일 때는 우선 사기 그릇 한 개에 사료를 버무려 절구로 잘 찼어서 먹인 후, 밥을 땅에 놓아둔 뒤에 집에 들이면 도망가지 않는다.

④ 治犬狂瀾法 光견병 치료법

▶ 青峰曰犬證惟癘爲凶, 凡此狂癘癲癲者, 皆因春日花開之時, 百花燦藥, 被蜂尾針刺其鼻, 其毒從鼻竅吸入, 久則發爲狂癘. 凡有此證, 急用水

芹汁 合飯食之而解.

청봉이 말하기를 “개의 질병 중에서 광견병이 가장 흉악한데, 이런 광견병은 대개 봄날 꽃이 필 무렵, 온갖 꽃이 만발하면 침을 가진 벌이 개의 코를 쏘아서, 그 독성이 콧구멍을 통해 들어가서 오래되면 광견병이 생긴다. 무릇 이러한 증세가 있으면 급히 미나리 즙을 사료에 섞어 먹이면 풀린다.”라 하였다.

▶ 又大油葱, 煮稀粥食之.

또한, 대유총으로 밀긴 죽을 끓여서 먹인다.

▶ 又大酸漿草野南蒿, 煮粥與食.

또한, 대산장초야남교로 죽을 끓여서 준다.

▶ 又地榆雄黃朱砂蒼朮, 合粥食之.

또한, 지유웅황주사창출을 죽에 넣어서 먹인다.

▶ 又貫衆阜角細辛, 煮綠豆去葯食豆.

또한, 관중조각세신을 넣어 녹두를 삶고 약재는 제거한 뒤 녹두만 먹인다.

⑤ 治皮癢法 가려움증을 치료하는 방법

▶ 犬患皮癢, 多由食胡椒所致, 或有蟲患而癢. 二證俱可合治, 外常以便汁塗之.

개가 가려움증을 앓는 것은 대개 호초를 많이 먹거나 벌레가 있어서 가려운 것이다. 두 가지 증상 모두 온전히 치료할 수 있으니, 외용으로 늘 똥물을 발라주면 된다.

▶ 又青螺汁芭蕉油合廣灰, 入醋塗之.

또 다른 처방. 청라 줍과초 기름을 이불 태운 재에 섞어 식초에 개어 바른다.

▶ 洗藥方. 貫眾阜角檳榔青果雄黃硫黃黃荊子寒水石, 共煎極濃, 洗之.

씻는 약 처방. 관중조각빈랑청과웅황유황황형자한수석. 이상의 약재를 몹시 진하게 되도록 함께 달여 환부를 씻어낸다.

▶ 服藥方. 雄黃甘草白芷血餘爲末, 入粥飼之.

먹이는 약 처방. 웅황감초사람머리카락. 이상의 약재를 가루 내어 흰죽에 타서 먹인다.

▶ 又仙人掌仙茅, 合粥與食.

또 다른 처방. 선인장선모를 흰죽에 타서 먹인다.

▶ 又生地玄參甘草, 煮粥與食.

또 다른 처방. 생지황현삼감초를 넣어 죽을 쑀

어서 먹인다.

⑥ 治犬毛脫法 개털이 빠지는 것을 치료하는 방법

▶ 淮山藥茯苓, 爲末, 入粥食.

회산약복령을 가루 내어 죽에 넣어서 먹인다.

▶ 豬蹄炒生豬油生甘草, 煮粥與食.

돼지발굽(볶은 것) 돼지기름(생것) 감초(생것). 이상의 약재를 넣고 죽을 쑀어서 먹인다.

⑦ 治犬臭法 개 냄새를 없애는 방법

▶ 凡犬周身臭不可聞者, 用爐底蒼朮甘松皂角細辛白芷. 常煮粥與食.

무릇 개의 온몸에 냄새가 나서 맡을 수 없는 지경일 경우에는 다음 처방을 쓴다. 노저창출감송조각세신백지. 이상의 약재를 넣고 죽을 쑀어서 먹인다.

▶ 又黃荊子菖蒲根, 合飯與食.

또 다른 처방. 황형자창포뿌리를 밥에 섞어서 먹인다.

▶ 又菖蒲蒼朮, 常帶於頸上, 可避.

또 다른 처방. 창포창출을 늘 목에 매어주면 냄새가 나지 않게 해준다.

⑧ 治犬生蠅營 기생과리 치료하는 방법

▶ 凡犬生蠅營者, 用雄黃甘草菖蒲, 煮粥與食.

무릇 개에게 기생과리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처방을 쓴다. 웅황감초창포. 이상의 약재를 넣고 죽을 쑀어서 먹인다.

▶ 又蛤蚧膩粉珍珠爲末, 合飯與食.

또 다른 처방. 합게이분진주. 이상의 약재를 가루 내어 밥에 섞어서 먹인다.

▶ 又菖蒲黃荊, 常帶於頸上, 可避.

또 다른 처방. 창포황형을 늘 목에 매어주면 기생과리가 생기지 않게 한다.

⑨ 治犬足生虱蟻變法 개의 다리에 이로 인해 생긴 선련(蟻變)을 치료하는 방법

▶ 犬患足生蟲遭蟻變者, 多因平時飲鹹味而致. 此證用早晨洗面水浸洗犬足自解.

개의 다리에 벌레가 생겨서 발발하는 선련은

대개 평소 때에 잔 음식을 먹어서 그런 것이다. 이 증상은 아침에 사람이 세수한 물에 개의 다리를 담그면 저절로 낫는다.

▶ 又雄黃硫磺藤黃爲末，煎水浸洗犬足，切勿與食，恐致斃命。

또 다른 처방. 옹황옹황등황. 이상의 약재를 가루 내어 물에 달인 뒤 개의 다리를 담그고 씻긴다. 이때 절대 이 물을 먹여서는 안 되는데, 개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⑩ 治犬耳內蟲蟻法 귓속의 벌레로 생긴 편선 치료법

▶ 觀水草指甲花煎水，入冰片 枯礬，滴入耳中。

관수초봉선화. 이상의 약재를 물에 넣고 달인 뒤 빙편과 고반을 넣고 귓속에 푹푹 떨어뜨려 넣는다.

▶ 如犬周身生蟲者，用枯礬明雄礬砂硫磺爲末，調羊膽塗。

개의 온몸에 벌레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처방을 쓴다. 고반명옹황봉사유황. 이상의 약재를 가루 내어 양의 쓸개에 개어서 환부에 바른다.

⑪ 治犬被水燙法 개의 탕화상을 치료하는 방법

▶ 青峰曰凡人家中，惟犬固不可少。凡造飲食，或犬進出，忽被滾水燙者，急取蚯蚓石灰白糖，調水塗敷。

청봉이 말하였다. 인간에는 개가 적지 않다. 무릇 음식을 만들 때에 혹 개가 뛰쳐나와 갑자기 뜨거운 물에 탕화상을 입는 경우에는 다음의 처방을 쓴다. 급히 지렁이석회백당을 구하여 물에 개어서 환부에 바른다.

▶ 又廣石灰，調水澄清，或入麻油清油井油，入水攪勻，再入蚯蚓焙乾爲末調敷。

또 다른 처방. 광석회를 물에 타서 깨끗한 옷물을 떠서 참기름청유정유를 넣거나 물을 넣어서 고루 섞은 뒤, 다시 지렁이를 넣고 불에 쪄어 말려서 가루 내어 개어서 환부에 바른다.

▶ 又皮硝 甘草黃連玄參石膏煎濃，入粥合喫。

또 다른 처방. 박초감초황련현삼석고. 이상의 약재를 진하게 달여서 죽에 넣어서 먹인다.

⑫ 治犬瘟證法 개의 온병을 치료하는 방법

▶ 青峰曰瘟疫流行，人物難以逃避，若人避疫之法殊多，惟畜類避疫之法甚少。凡有犬瘟者，急用蒼朮細辛雄黃朱砂爲末，用猪油炒飯，將藥入內，與犬服之。

청봉이 말하였다. 온역이 유행하여 사람이나 동물이 온역을 피하기 어려울 때, 사람은 온역을 피할 방법이 매우 많지만 가축들은 온역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적다. 무릇 온역을 앓는 개에게는 다음 처방을 쓴다. 급히 창출세신옹황주사를 구하여 가루 내고, 돼지기름으로 밥을 볶은 뒤 밥에 앞의 약 가루를 넣고 개에게 먹인다.

▶ 又野南蕎，煮粥與食避瘟。

또 다른 처방. 야남교로 죽을 쑤어 먹이면 온역을 피할 수 있다.

▶ 又胡麻川芎，燉猪脂骨服。

또 다른 처방. 호마천궁을 돼지기름과 뼈로 지져서 먹는다.

▶ 或用甘松皂角蒼朮菖蒲雄黃朱砂白芷細辛爲末，用布裝貯，令泄藥氣，系於犬頸，大能避瘟，即染瘟能解。

혹은 다음 처방을 쓴다. 감송조각창출창포옹황주사백지세신. 이상의 약재를 가루 내어 베로 된 자루에 넣어 약기운이 세어나가게 하여 개의 목에 걸어주면 온역을 피해가는 데 좋으니, 곧 전염성 온역을 낮게 할 수 있다.

▶ 又桃柳葉黃荊葉菖蒲葉貫眾葉土細辛，與犬臥睡，避瘟解疫，大有奇功。

또 다른 처방. 도류 일황형 일창포 일관중 일토세신을 개가 자고 있을 때 주면 온역을 피하고 낮게 하는 데 크게 효험이 있다.

4. 근현대 한국 전통의학 소재 개의 질병에 대한 처방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 초기 『鄉藥濟生集成方』에 牛馬醫方을 부기한 이래, 세조 12년(1466) 馬醫書가 나왔고, 仁祖 때에 『馬經診解』가 나온 바 있다. 이후 말과 소 이외의 동물의 질병에 대한 처방은 흥만선의 『山林經濟』와 박지원 『課農小抄』 등에 돼지나 양 등의 질병에 대한

간단한 처방들이 보이는데, 개나 고양이 등에 대한 처방은 조선시대에는 보이지 않고 일제 강점기가 되어서야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개의 질병에 대한 처방들은 가지 수가 많지 않으며 처방의 내용도 매우 소략하지만, 중국에서 발견할 수 없는 처방들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나라에서 처방이 새롭게 형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1) 『增補單方新編』(1913)

茶山 丁若鏞, 舟村 申曼을 가탁한 경험방 서적으로 隆熙 3년(1909)에 錦石 李義綱이 唯一書館에서 간행하였다. 풍문(風門) 외 28문과 두부(頭部) 외 16부로 나누고 400여 명명을 나열하였다. 책의 제목처럼 단방 위주의 간단한 처방들을 싣고 있는데, 한글 번역이 병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책의 말미에는 「六畜病」이라는 제목 아래 소의 병[牛病], 말의 병[馬病], 양의 병[羊病], 돼지의 병[猪病], 개의 병[狗病], 닭의 병[鷄病] 등 여섯 가축의 질병에 대해 논하였다. 개의 병에 대해서는 개의 돌림병을 다루고 있어 특징적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²¹⁾

- ▶ [狗病] 狗疫, 伏令皮煎灌之, 或香油灌之.
- [개의병] 개의 돌림병에는 복령 껍질을 달여서 입속에 부어넣거나 참기름을 입속에 부어넣는다.

2) 『(華陀外科扁鵲內科)秘傳萬病通治法』(1933)

華陀와 扁鵲을 가탁한 서적으로 1933년 李宗壽가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비방집을 간행한 것이다. 책은 風門 외 20개의 문과 頭部 外 15개의 항목, 그리고 附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문의 구성과 순서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기보다는 실용성적인 면을 강조 하였다. 부록에는 실용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 구급방에서부터 뜸뜨는 법, 각종 금기, 병명대조표, 가축 치료법 등 실생활에 유용한 것들을 모아 있는데, 마지막에 해당하는 「十三, 治六畜雜病」에 말[牛], 말[馬], 돼지[豚], 닭[雞], 개[狗] 등 여섯 가축의 질병 치료 방법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狗’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²²⁾

- ▶ 狗病, 用水調平胃散灌之하고 加巴豆尤効라. 蒼朮 二錢 厚朴 陳皮 甘草 各一錢.¹⁴⁾

개의 병에는 평위산을 물에 타서 먹이되 과두를 더하면 더욱 좋다. 창출 후박 진피 감초 각 1돈.

- ▶ 狗猝死, 以葵根塞鼻可活이라.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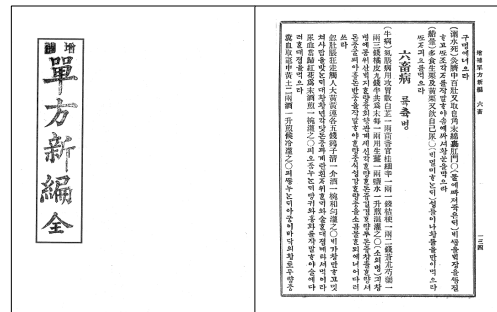
개가 갑자기 죽으려 하는 경우에는, 규근으로 콧구멍을 막으면 살릴 수 있다.

- ▶ 狗遍身膿癩, 百部根膿煎洗之라.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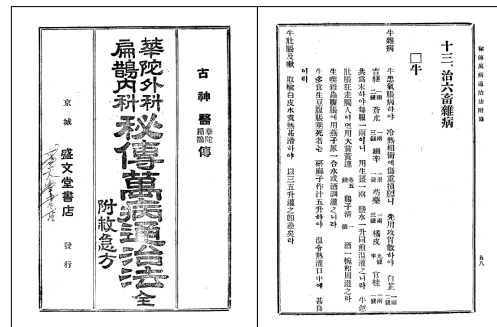
개의 온몸에 고름이 나고 허는 경우에는 백부근을 진하게 달여서 환부를 씻어낸다.

- ▶ 兒狗疥蟲, 赤小豆煮取汁洗之 狗疥에 用草麻子三四個하야 細切和飯에 飼四五日하고 又方은 巴豆를 如前法飼一次니라.²⁷⁾

강아지의 움벌레는 쌀을 달인 물로 씻어내고, 개의 움에는 피마자 3-4개를 가늘게 썰어서 밤에 섞어서 4-5일 동안 먹인다. 다른 처방으로는, 과두를 피마자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 1차레 먹인다.



<그림 3> 『增補單方新編』의 「六畜法」



<그림 4> 『(華陀外科扁鵲內科)秘傳萬病通治法』의 「治六畜雜病」

14) 李宗壽. 『(華陀外科扁鵲內科)秘傳萬病通治法』. 盛文堂書店, 170, 1933.

<표 3> 동아시아 전통의학에 나타난 개의 질병과 치료 방법

출전	치료대상	치료 약재 및 처방	형태	사용법
『本草拾遺』(唐)	癩	胡蘚子(果,莖,葉)	煮汁	내복
	癩	省藤	煮粥	내복
	瘦	鱈魚	生	내복
『日華子諸家本草』(宋)	百病	烏藥	摩	내복
『證類本草』(宋)	癩	獼猴桃(枝葉)	煮汁	내복
	癩疥	海狗魚(皮中肪)	生	외용
	癩瘡	魚脂	生	외용
『活獸慈舟』(淸)	犬狂	大油葱	煮稀粥	내복
		大酸漿草·野南蒿	煮粥	내복
		地榆·雄黃·朱砂·蒼朮	煮粥	내복
		貫衆·阜角·細辛·綠豆	煮粥	내복
	皮癩	便汁	-	외용
		青螺汁·芭蕉油·廣灰·醋	-	외용
		貫衆·皂角·檳榔·青果·雄黃·硫黃·黃荊子·寒水石	煎濃汁	외용
		雄黃·甘草·白芷·血餘	煮粥	내복
	毛脫	仙人掌·仙茅	煮粥	내복
		生地·玄參·甘草	煮粥	내복
		淮山藥·茯苓	煮粥	내복
		豬蹄炒·生豬油·生甘草	煮粥	내복
	犬臭	爐底·蒼朮·甘松·皂角·細辛·白芷	煮粥	내복
		黃荊子·菖蒲根	煮粥	내복
		菖蒲·蒼朮	-	외용
	生蠅營	雄黃·甘草·菖蒲	-	내복
		蛤蚧·膩粉·珍珠	合飯	내복
		菖蒲·黃荊	-	외용
	足生虱蟹學	雄黃·硫磺·藤黃	煎水	외용
	耳內蟲蟻	觀水草·指甲花·冰片·枯礬	煎水	외용
		枯礬·明雄·硼砂·硫磺·羊膽	末	외용
	被水燙	蚯蚓·石灰·白糖	調水	외용
		廣石灰·麻油·清油·井油·蚯蚓	末	외용
		皮硝·甘草·黃連·玄參·石膏	煮粥	내복
癩證	蒼朮·細辛·雄黃·朱砂	炒飯	내복	
	野南蒿	煮粥	내복	
	胡麻·川芎	-	내복	
	甘松·皂角·蒼朮·菖蒲·雄黃·朱砂·白芷·細辛	-	외용	
『增補單方新編』 (일제강점기)	狗疫	茯苓	-	내복
		香油	-	내복
『秘傳萬病通治法』 (일제강점기)	狗病	平胃散[加巴豆]	-	내복
	猝死	葵根	-	외용
	遍身膿癩	百部根	膿煎	외용
	兒狗疥蟲	赤小豆	煮汁	외용
		草麻子	和飯	내복
狗疥	巴豆	和飯	내복	

Ⅲ. 고 찰

동아시아 전통사회에서 인간이 인식한 최초의 개의 질병은 “癩”였다. 과(癩)는 “瘡”과 통하는 말로 피부 표면에 생긴 질환을 가리킨다. 개의 외형에서 드러나는 피부 증상을 인식한 셈이다. 이러한 시각은 다분히 인간 중심적인 것이다. 질병으로 인한 개의 고통 보다는 식육으로서의 활용 가치 측면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개와 소가 수척한 경우에 추어를 사용하는 치법이 비교적 이른 唐代에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흥미로운 것은 『日華子諸家本草』에 나오는 烏藥의 기록이다. 오약을 고양이와 개의 모든 질병에 두루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른 치법에서는 말과 개, 소와 개 등을 함께 언급한 반면, 이 본초서에서는 고양이와 개를 함께 언급하였다. 송 초기에 고양이와 개가 식육 이상의 의미로 인간에게 길러졌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모든 병을 오약으로 치료한다는 언급을 볼 때, 당시에 질병을 범주화하여 치료하는 방법에게서 경험이 집적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대 성립된 『活獸慈舟』는 개의 질병에 관하여 가장 풍부한 자료를 남기고 있다. 개의 질병에 대한 경험이 비교적 잘 집적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개에 대한 인간의 인식 변화가 있었다. ‘첫머리의 ‘總論’이나 ‘개의 생김새를 가지고 감별하는 법 [論相大法]’, ‘개를 집안에 들이는 방법 [論納大法]’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개는 식육을 제공하는 존재 이상의 동물로, 인간의 집과 재산을 지키는 소중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잡아먹을 수 있도록 살을 찌우거나 피부 질환을 고치는 것에서 벗어나 개 질병 자체에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인간 중심에서 개의 질병을 바라보던 시각에서 개를 중심에 두고 개의 질병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이 책에 실려 있는 처방들이다. 개라는 동물에 대한 특성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인간에게 사용한 처방들과 상이하다. 이는 오늘날 반려동물에 대한 전통의학적 접근에서 반려동물

에 대한 처방을 사람에 대한 처방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과는 몹시 다른 양태를 보이는 것으로, 오늘날 수의학의 전통의학적인 접근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活獸慈舟』에서는 광견병, 가려움증, 탈모, 악취, 기생과리, 선련(蟹癩), 귀속의 편선, 탕화상, 온병 등 개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온갖 병증에 대해 망라해 놓아 오늘날 응용 가능성이 높다. 분량은 간결하지만 핵심적인 증상과 치법을 적절히 논하고 있으며, 처방의 방식도 복약과 외용을 두루 갖추어놓아 전문성을 확보한 듯한 인상을 준다.

특히 오늘날 사람에 대한 처방을 그대로 답습한 처방들의 경우, 사람에게 쓰는 당제를 응용하였기 때문에 복약 시의 거부감이 매우 클 수 있는 것에 반해, 『活獸慈舟』 처방의 경우는 복약의 경우 대개 개가 먹는 밥에 타서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당제만을 먹이는 방식에 비해 매우 자연스러운 복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견병이 벌에게 코를 쏘여 발발한다든지, 가려움증이 호초를 많이 먹어서 생긴다든지 하는 내용들은 신빙성에서 떨어지는 내용으로, 오늘날 수의학에서 응용할 경우 내용에 대한 보다 세심한 성찰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에게 썼던 처방은 현재 『增補單方新編』과 『秘傳萬病通治法』 등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이 책들에서는 개뿐만 아니라 소, 말, 양, 닭, 돼지 등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들의 질환에 대한 처방들을 담고 있는데, 대개의 처방들은 이미 홍만선(洪萬選, 1643-1715)의 『山林經濟』나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課農小抄』 등에서 살필 수 있으나 개에 대한 처방은 우리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처방의 내용이 풍부하지 않고 개의 질병을 ‘狗病’으로 묶어서 처리해놓은 것이다. 하지만 『增補單方新編』에서 하나의 처방 밖에 없던 것이 『秘傳萬病通治法』에 벌레 등에 대한 외용약이 몇몇 소개되어 있어 그 의의를 살펴볼 수 있다 하겠다.

동아시아에서 나온 개에게 쓴 처방의 특성은,

사람에게 적용한 처방과는 별개로 개에 대한 처방을 전통의학의 틀 안에서 개에게 맞추어 만들어내었다는 것이다. 이 처방들은 복용뿐 아니라 기생충이나 피부질환에 대한 외용약까지 두루 소개되어 있어 오늘날 응용 가능한 분야에 두루 걸쳐 있다는 특성이 있었다. 오늘날 특히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가정이 늘어나고, 독거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보다 더 세심하며 저비용을 동반할 수 있는 연구는 이러한 문헌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 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수의학 분야 내에서 전통의학에 바탕을 둔 처방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진행 중인 연구들도 사람에게 썼던 처방들을 동물들에게 변용하여 쓰거나 서구권에서 건너온 침구술에 대한 연구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중국의 『活獸慈舟』와 우리나라의 『增補單方新編』, 『秘傳萬病通治法』 등에 보이는 반려동물 치료법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압축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본고를 마칠까 한다.

동아시아에서 살필 수 있는 개의 질병에 대한 처방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처방들은 개라는 동물의 특성에 맞게 처방을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사람에게 썼던 처방과는 결을 달리 한다는 특성이 있었다. 이는 전통수의학에서 사람과 말·소의 처방이 전혀 다르듯, ‘반려동물’들에 대한 처방도 사람과는 확연히 다른 시각에서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둘째, 약물의 사용 방식에 있어서 외용약이 발달해 있었으며, 복용약의 경우에는 개가 먹는 밥이나 죽에 섞어서 먹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개가 약에 대한 거부감을 적게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이다.

셋째, 이 처방들은 오늘날 반려동물인 개에게 발생 가능한 다양한 병증들에 응용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었다. 다만, 개의 병증에 대한 설명 속에서 오늘날 과학적 지식으로 납득하기 힘든 내용이 다소 포함되었다는 것은 흠결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V. 감사의 글

이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주요사업 ‘고문헌 기반 <한의고전지식DB서비스> 개발(K13110)’의 지원을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한국경제매거진. 재미있는 펫 비즈니스 세계. [cited 2013 jun 23]. Available from : URL: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001&nkey=2010072600765000531&mode=sub_view)
2. 배금선. 애완견 사육이 사람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1-32, 2004.
3. 서정옥. 서울 시내 일부 소동물병원에서 임상진료된 애완견의 질병분포에 대한 의학 통계학적 조사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4, 1996.
4. 정성목, 박수원. 개에서 추간관 질환에 대한 침술치료 증례. 韓國臨床獸醫學會誌, 21(1): 49-51, 2004.
5. 김태화, 김병영, 김원배, 김광식, 유건주, 김덕환, Phil A. M. Rogers. 개에서 둔부 골관절염의 봉침 치료. Journal of Veterinary Clinics, 23(2):190-193, 2006
6. 김태경, 김상훈, 전형규, 윤효인, 조성환, 김덕환. 개 간손상(肝損傷)에 대한 소시호탕

- (小柴胡湯)의 회복효과(回復效果). *Journal of Veterinary Clinics*, 24(2):164-168, 2007.
7. Isabelle Busta, Hui Sheng Xie, 김민수. 면역매계성 혈액장애를 가진 소동물에서 귀비탕의 사용. *Journal of Veterinary Clinics*, 26(2):181-184, 2009.
 8. 김민수, 김세훈, 차재관, 김남수, 강형섭. 외상성 척수 손상에 대한 척추 수술을 한 3마리의 개에서, 술 후 처치로써 전침과 독활기생탕을 적용한 증례. *Journal of Veterinary Clinics*, 28(3):318-322, 2011.
 9. Schwartz, Cheryl. Four paws, five directions : a guide to Chinese medicine for cats and dogs. USA, Celestial, 1996.
 10. Christina Matern. Acupuncture for Dogs and Cats : a pocket atlas. New York, Thieme, 2012.
 11. 이은상. 개와 고양이의 전통 한방 보약. 서울, 펴플, 2012.
 12. 김건수. 우리나라 유적 출토 개 유체 고찰. *호남고고학회지*, 37:5-25, 2011.
 13. 안용근. 한국의 개고기 식용의 역사와 문화. *한국식품영양학회지*, 12(4):387-396, 1999.
 14. 안용근. 한국의 개고기 음식에 대한 고찰. *한국식품영양학회지*, 12(4):397-408, 1999.
 15. 허준(윤석희 외 역). 동의보감. 경남, 동의보감출판사, 2059, 2005.
 16. 唐愼微(張存惠 重刊).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影印本). 臺北, 南天書局有限公司, 319, 326, 335, 420, 421, 431, 478, 1976.
 17. 牛家藩. 中兽医学的起源与发展. *中国农史*, 84, 1991.
 18. Xiao Kezhi. Transmission and Relation of Various Old Veterinary Books and Editions . 제 9회 동아시아 농업사 국제학술대회. 940, 2009.
 19. 陈长佑. 《活兽慈丹》初考. *四川畜牧兽医*, 46-48, 1981.
 20. 李南暉(四川省畜牧兽医研究所 교주). 活兽慈舟校注. 四川, 四川人民出版社, 430-439, 1980.
 21. 丁若鏞, 申曼 著(池松旭 편역). 『增補單方新編』. 新舊書林, 137, 1913.
 22. 李宗壽. 『(華陀外科扁鵲內科)秘傳萬病通治法』. 盛文堂書店, 170, 1933.